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8월의 크리스마스』 신선식품 기부 캠페인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는 신선식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겨울철에 집중된 기부를 여름철부터 신선식품으로 기부생활화를 목표로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8월 25일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기부 협약식을 시작으로 소외계층에게 대표 신선식품 계란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각 가정에 직접 계란을 배달하였으며 8월 29일에는 “김필원의 12시에 만납시다” 생방송을 통한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캠페인 소개 및 현장모금활동, 서울시청광장에서 가수 호란, 남궁옥분, 개그맨 정성호 등 이 출연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콘서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여름철 신선식품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였다. 안영기 위원장은 8월의 기부 모금행사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백질인 신선식품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모금된 기부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신선식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내 씨닭 생산성 향상 위해 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씨닭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15일 충남대학교에서 ‘종계(씨닭) 생산성 향상과 병아

리 품질 개선’을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국내외 연사들은 선진국의 최신 기술과 그간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세계적 육종회사인 아비아전에서 △ 세계 종계산업 현황 및 종계 육종·개량 방향(그레그 모턴) △ 육용종계(로스)의 최신 중점 사양관리 기술(그렉 히트)에 대해, 설비전문회사인 치크마스터에서 △ 최신 부화장비 및 기술발전 동향(데이비드 아실렐리)을 발표했다. 이어 국내 전문가들이 △ 산란종계(하이라인)의 최신 중점 사양관리 기술(한국양계 김윤호 대표)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내 종계장 관리 기술 연구(삼화원종 하중수 차장) △ 병아리 강건성 향상 부화 기술 개발 연구(국립축산과학원 방한태 연구사)를 발표했다.

『가축개량관련자료 2015년』 발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014년 한 해 동안의 가축 개량 성과와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 주요 실적 등을 담은 ‘2015 가축개량관련자료’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크게 가축개량 총론, 축종별 개량 자료, 기타 개량 자료로 구성했다. 가축개량 총론은 한우, 젓소, 돼지, 닭의 개량 원리와 방법, 우량 씨수소, 씨돼지, 씨닭 선발 방법을 도표와 그림으로 쉽게 설명했다. 축종별 개량 자료는 1년 동안의 각 축종별 능력 검정 자료와 등급 판정 결과, 개량 농가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기타 개량 자료는 인공수정사업, 종축등록사업, 신기술보급현황, 개량협의회 운영과 가축개량관련 축산법령 조문을 실었다.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을 통해 PDF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급격한 기후 변화, 축산은 어떻게 대응할까



농촌진흥청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해 축산 부문의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지난 2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개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 태풍, 장마 등 기상이변과 자연 재해 발생이 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약과 정책도 급변하고 있어 우리 현실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기술·연구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정책 부서와 연구기관, 대학 등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산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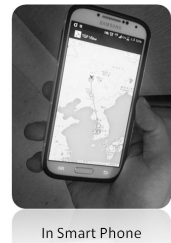
가축질병방역팀, 방역·축산 현장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이 방역 강화와 현장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가축질병방역팀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전염병으로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한 가축유전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지난 6월 신설했으며, 수의연구직 7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과 축산생명환경부(완주), 축산자원개발부(천안), 가축유전자원센터(남원), 한우연구소(평창), 난지축산연구소(제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유전 자원(생축, 동결정액, 수정란 등)과 실험 가축의 질

병 관리와 방역을 총괄한다. 5개 청사별·축종별 맞춤형 차단 방역 상황을 자체 진단해 내·외부 가축 질병의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가축사육단지별로 가축 질병예방 현장 교육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AI)는 내 손 안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8월 18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철새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철새 위치추적 관리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주)한국환경생태연구소와 함께 2013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와 철새의 관련성, 철새의 이동경로 및 서식지 파악 등을 위해 상용통신망(WCDMA)과 인공위성(PTT)을 이용한 위치추적장치를 철새에 부착해 왔다.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야생조류의 종류 및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철새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져 (주)레이플소프트와 함께 "위치추적기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위치추적기 통합관리 시스템은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손 안에서 실시간으로 철새 이동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위치추적장치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로 철새의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업이 진행 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철새에 의

해 전파되는 질병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중, 이하 방역지원본부)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된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하여 가축질병 청정화 및 안전축산물 공급의 중요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방역지원본부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가축전염병에 대한 홍보판넬을 전시하여 농가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홍보이벤트를 실시하여 가축방역과 안전축산물 공급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9일 개막식에 참여한 임경중 본부장은 “이번 국제축산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고 있는 만큼 많은 관람객들, 특히 양축농가들의 가축방역의식 고취와 안전축산물 생산에 동참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15년 HPAI 재발방지를 위한 가금농가 방역순회 교육 실시

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도본부장 도홍기)는 북방철새 도래시기를 맞이하여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 순회교육을 지난 14일 북부권(익산·군산)을 시작으로 18일까지 5개 권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4개 시·군의 가금 사육농가 및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및 축산위생연구소의 HPAI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시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과 HPAI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방역지원본부는 교육참석자들로 인한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입구에서 차량 및 대인소독을 실시하며, 교육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정부3.0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및 LOD 구축 특강, 착수보고회 개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지난 8월 24일 정부 3.0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 전문가 특강과 미래 창조과학부와 정보화진흥원이 지원하는 「국가 DB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특강 및 착수보고회에는 김진만 원장과 부서장, 지원장 등 전 직원과 식약처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최정순 사무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송경빈 수석, HACCP 안심축산물 국가DB사업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특강은 빅데이터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이영환 교수를 초빙하여, 「빅데이터의 활용과 LOD(Linked Open date)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전국단위 '안전관리통합인증 설명회' 첫 개최



인증원은 지난 8월 26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선샤인 호텔에서 전국 축산물브랜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통합인증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인증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관리통합인증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인증원과 MOU 체결 브랜드 및 3년 연수 우수 축산물브랜드, 농업경영체, 대형 가공 및 유통업체 등 전국 40여개 브랜드와 가공·유통분야 지역 HACCP 연구회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개별 축산물브랜드(업체)위주로 설명 및 간담회로 실시하던 것을, 전국단위 축산물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는 3부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건강급식(학교·병원·군 급식 등 안전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성료



인증원은 김춘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과 지난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급식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학교·병원·군 급식의 안전향상을 위해 축산물HACCP 인증제품의 사용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박윤옥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협, 소비자단체협의회, 언론 등 단체급식 관련 단체와 전문가, 업체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15 A 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 참가... 축산물 해썬(HACCP) 홍보 총력



인증원은 지난 8월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5 A 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에 참가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가해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도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인증원은 미래창조과학부내 축산물HACCP 홍보관을 설치하고 LOD기반 축산물안전먹거리 국가 DB 구축사업 소개와 축산물 안전·안심먹거리의 선택기준인 HACCP관련 정보 안내 및 현장 교육 등 여러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 교육에 이어 해썬(HACCP)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HACCP 인지도 조사를 질문형 스티커방식으로 조사하고 기념품 제공을 병행해 관람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 인증원에 의하면 3일간의 박람회 기간 내에 2000여명의 관람객이 축산물해썹 홍보관을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인증원의 홍보 관계자는 “소비자 및 HACCP인증대상자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인증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밀착형 홍보인 박람회 참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육계 계열화주체 농가 지도 담당자 간담회 실시

인증원 중부지원은 지난 9일 육계농장 HACCP·육계브랜드 안전관리통합인증 확대를 위한 「육계 계열화주체 농가지도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육계농장 HACCP인증과 안전관리통합인증 확대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청지역에서 육계 계열주체 소속으로 현장에서 육계 농가를 지도하고 있는 올품·참프레·체리부로·하림·한강CM(가나다순)의 5개 기관 9명의 농가지도 담당자가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농장주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해드립니다.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부성축산

대표 : 이재완

대구시 북구 관음동
 TEL : (053) 324-7752
 FAX : (053) 324-7736
 H·P : 011-518-7752
 010-4000-9023